

여수 플라스틱 공장 대화재 발생

5월27일 공장 8개동 전소에 정전까지 ... 피해액 30억원 달해

5월27일 오후 10시33분께 전남 여주시 화양면 화동리 플라스틱 가공공장 2곳에서 불이나 공장 8개동, 3400여㎡가 불에 탔다.

불은 공장안에 있던 합성수지와 기계 등 설비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.

그러나 휴일로 일하는 근로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.

불이나자 소방차 30대와 소방인력 290여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섰으나 인화성이 강한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제품이 불에 타 8시간여만에 진화됐다.

화재로 정전이 되면서 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.

소방당국은 공장 2곳 가운데 1곳에서 불이나 인접 공장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29>